

동물복지 향상 · 유기 예방에 '총력'

전북도, 동물보호복지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10개... 83억원 투입

전북도가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도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구조·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에 2021년 대비 41억원 증가한 83억 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도는 전국 최초 공공 동물장 묘시설 완공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축산 인증(122호)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및 동물

등록률이 '20년 대비 12% 증가한 62%'를 달성하며, 유기동물 발생이 처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임실군)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3개소~6개소) 및 반려견 등록률 제고를 목표로,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구조 및 보호 안전망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임실 오수의

견 관광지에 건립하고,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김제, 임실, 부안에 조성한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위해 도내 민간 동물보호시설(2개소) 환경개선과 지역 동물보호센터(완주군) 조성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여건도 크게 개선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마당개의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주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대폭 확대(1,220

마리 → 4,500마리), 추진한다.

더불어 유기동물 구조 과정에서 동물 및 구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장비 및 안전장비를 신규 지원하고, 야생화된 유기견은 특수 포획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동물 구조 안전망도 확충한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오는 2024년까지 동물등록률 75% 달성해 동물 유기를 대폭 감소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성숙한 생명존중 반려동물 문화가 도내에 정착될 수 있게 체계적인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D-30'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둔 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두세훈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청년 황금시대 열어갈 것"

완주형 청년수당 ·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for dream 청년꿈통장 등 청년분야 공약 제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완주청년 황금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완주형 청년수당,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for dream 청년꿈통장,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청년 주거비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정책 통합센터 및 청년거점공간 확대, ▲청년정책 전담조직 확대 등이다.

먼저, '완주형 청년수당'은 전북형 청년수당과 달리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이 약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이어, "for dream 청년꿈통장 지원 사업"인 청년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근로·사업소득 대상 청년에게 본인 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로 매칭 지원해줌으로써 일하는 청

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또 "완주군 거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청년들에게 주거비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의원은 완주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청년복지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 통합센터를 신설하며, 13개 읍·면에 청년 거점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활용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수가 되면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 청년 정책 총괄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그간 학업이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실질적이고 현실적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완주에 사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논 활용 직불금 신청하세요"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접수 동절기 이모작 통한 농업소득 증진 기대

전북도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아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의 목초류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인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도내 1만2천여 농가에 140억 원이 지급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발농업(논이모작)을 이행해야 한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관리위원회에서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행점검 시 이웃농지 경계 미설치 및 용·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필지의 직불금이 50% 감액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논 활용(논이모작)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제9회 '인구정책 분야' 도민 공모

내달 11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이하 전북연)이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지혜를 모은다.

전북연은 도민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제9회 '별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과제 제안 분야를 인구정책 분야로 특정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

마당 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 받아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메일 ida@jthink.kr로 접수할 수 있다.

전북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전북도 인구관련 정책을 도민과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응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

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내부 연구진 의견을 종합해 선정되며, 심사결과는 4월중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063-280-7143)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남 위기대응을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